ちゅうぐうじしょうとくたいし中宮寺と聖徳太子

中宮寺は、奈良時代には聖徳太子が建立した七寺「法隆寺、四天王寺、中宮に法を持ている。」といい、「法をはないでき、神宮においた。」といい、「大きはないでき、神経のでき、神経のでき、神経のでき、神経のでき、神経のでき、神経のでき、神経のでき、神経のでき、神経のでき、神経のでき、神経のでき、神経のでき、神経のでき、神経のでき、神経のでき、中宮に持ち、中宮に寺、大きが日舎」の三つの寺に分けたと伝えられます。

このように中宮寺は、古代から聖徳太子との関わりが深い寺として知られていました。



聖徳太子像(京都・仁和寺)

Prince Shōtoku and Chūgūji

According to records from the Nara period, Chūgūji was one of the seven temples established by Prince Shōtoku. Other accounts indicate that it was one of three temples to which the prince accorded some land in Harima Province. He had received the land from Empress Suiko as a reward for a lecture he had given on some Buddhist sutras. Prince Shōtoku's role in these various sources suggests that he was intrinsically linked to the founding of the temple.

中宮寺与聖徳太子

据日本奈良时代资料记录,中宫寺被认为是圣德太子所建七座佛寺之一。据说推古天皇为嘉奖圣德太子讲说佛经,给他封赏了土地。圣德太子便将封地的收入分配给中宫寺等三家寺院做其经济来源。由此可见,自古中宫寺与圣德太子渊源深厚。

주구지 절과 쇼토쿠 태자

나라시대 기록에 의하면, 주구지 절은 쇼토쿠 태자가 건립한 7개 절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또 쇼토쿠 태자의 불교 경전 강의에 대하여 스이코 천황이 태자에게 토지 를 부여했고, 태자는 이 토지의 소유 를 주구지 절을 비롯한 3개 절로 나 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의 산물을 각 절의 운영에 보태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주구지 절은 예부터 쇼토쿠 태자와 관계가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 다.